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소설, 영화 및 드라마 속
꽃의 상징성과 원예치유에의 활용

濟州大學校 大學院

園藝學科

鄭京任

2024年 2月



소설, 영화 및 드라마 속 꽃의 상징성과 원예치유에의 활용

指導教授 吳 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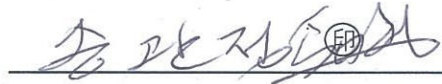
鄭 京 任

이 論文을 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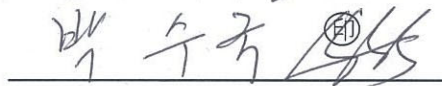
2024年 2月

鄭京任의 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Seal)

委 員

 (Seal)

委 員

 (Seal)



濟州大學校 大學院

2024年 2月



Symbolism of Flowers in Fiction, Film, and Drama and their Use in Horticultural Healing

Kyung-Im Jung

(Supervised by professor Wook Oh)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cience in Agriculture

2024.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Kwan Jeong Song, Prof. of Horticultural Science

.....
Thesis director, Sookuk Park, Prof. of Horticultural Science

.....
Thesis director, Wook Oh, Prof. of Horticultural Science

February 2024

DEPARTMENT OF HORTICULTURAL SCIENCE
GRADUATE SCHOOL OF INDUSTRY
JEJU NATIONAL UNIVERSITY

목차

목차	i
요약	ii
표 목차	iv
I. 서론	1
II. 연구 방법	3
2.1. 연구 대상	3
2.2. 연구 방법	6
III. 결과 및 고찰	8
3.1. 의지	8
3.2. 사랑	12
3.3. 상실	17
3.4. 순환 성향	23
3.5. 생명	26
IV. 결론	29
V. 인용문헌	32
부록 꽃의 상징성을 활용한 원예치유 프로그램 제안	35
ABSTRACT	37

소설, 영화 및 드라마 속 꽃의 상징성과 원예치유에의 활용

정경임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원예학과

요 약

이 연구는 소설, 영화, 드라마 등의 문화 매개체에서 꽃의 상징성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작품은 주로 2000년대 이후 발표된 것을 선정하였으며, 소설 12편, 영화 4편, 드라마 5편 등 총 21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소설은 국내에 서식하는 식물을 다루기 위해 한국 작품으로 한정하였고, 드라마와 영화는 국내외 작품을 모두 포함하여 꽃뿐만 아니라 정원까지 확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작품에서 발견된 꽃의 상징성은 의지, 사랑, 상실, 순한 성향, 생명 등 다섯 가지 주제로 묶었다.

분석 결과, 각 작품 속 꽃들은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인간의 내면을 보여주며 사건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였다. 또한 꽃의 상징을 통해 복합적인 주제를 드러냈다. 소설에서는 꽃의 생김새나 이미지, 꽃말, 꽃과 관련된 풍습 등을 활용하여 꽃의 상징성을 은밀하게 보여줌으로써 상상하고 유추하게 하는 힘이 있다. 반면에 드라마와 영화에서는 영상에 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상상의 영역보다는 스토리와의 연관성에 집중하는 효과가 있으며, 꽃과 식물, 정원의 상징성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각 작품에서 다루어진 꽃의 상징성을 앞으로써 작품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꽃에 대한 관심, 나아가 식물의 세계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꽃의 생리적 특성, 이미지, 꽃말 등 각 작품이 꽃의 상징을 다루는 방식을 스토리텔링하여 원예치유 수업을 풍부하게 넓힐 수 있다. 꽃의 상징성을

활용한 원예치유 프로그램이 심리·정서적 영역에서 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영화 <레옹>과 소설 <프리페이드 라이프>를 도구로 삼아 원예치유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이러한 수업계획서가 원예치유 프로그램에서 풍부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표 목차

표 1. 연구 대상 작품 목록	4
표 2. 참고 문헌 목록	5
표 3. ‘의지’로 상징된 꽃	11
표 4. ‘사랑’으로 상징된 꽃	15
표 5. ‘상실’로 상징된 꽃	21
표 6. ‘순한 성향’으로 상징된 꽃	25
표 7. ‘생명’으로 상징된 꽃	28
표 8. 원예치유 프로그램 제안 1: 영화 <레옹>	35
표 9. 원예치유 프로그램 제안 2: 소설 <프리페이드 라이프>	36

I. 서론

요즘은 보는 즉시 그 뜻을 알아채는 ‘직관(intuition)’이 대세라면, 현대사회 이전에는 직접적으로 말하거나 보여주는 것 대신 은유적으로 표현한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동양에서는 십장생(十長生)이라 하여 거북, 돌, 사슴 등 열 가지를 대상으로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을 글과 그림에 수없이 담아냈다. 또 집안마다 혹은 단체마다 엠블럼이라 하여 문장이나 깃발을 사용했다. 그리스 로마 신화(Greek-Roman mythology)에서는 프시케(Psyche)의 ‘숨(영혼)’을 붙여넣는 것을 나비로 상징하고, 헤라(Hera) 곁에는 화려한 공작이 늘 등장한다. 술의 신 디오니소스(Dionysus)는 포도 잎으로 만든 화관을 쓰고 큼직한 포도들이 그의 주변에 널려 있다. 이와 같이 살아 있는 생명체든 정물이든 신이든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이미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각각에 상징성을 부여하기를 즐겨 한다.

그중 꽃(flower)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감정과 문화 전통을 전하는, 말 없는 강력한 전달자이다(Buckmann, 2016). 무속신화에는 서역국에 있는 ‘서천꽃밭’이 흔히 등장하는데, 제주도에도 ‘생불할망’이라는 신화가 있다. 사람의 영혼이 꽃이라는 관념과 그 영혼이 꽃이 되어 피어 있는 영혼의 꽃밭, 그 꽃을 관리하면서 인간 세상에 꽃을 가져다준다는 신화이다(김, 2011). 그리스인들은 천국이 수선화로 뒤덮여 있다고 믿었다. 중국인들은 이 세상에서 산 여자들 하나하나를 위해 다음 세상에 하나씩의 꽃이 피어난다고 상상했다. 고대의 이 두 믿음은 꽃의 가장 흔한 상징적 의미인 천국의 상태와 여성적 아름다움을 예로 보여준다. 꽃은 젊음과 생기의 보편적 상징이지만,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덧없음을 뜻하기도 한다(Fontana, 2002).

그래서인지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 등에서 꽃이나 식물, 정원 등을 소재로 삼거나 주제를 부각하는 상징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꽃의 상징성을 통해 등장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거나 인간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 사건의 결정적 단서를 알아채도록 ‘직관’이 아닌 ‘슬쩍’ 보여주기를 시도한다. 꽃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나 형태, 생리적 특성을 빌어 등장인물의 감정을 전달하기도 하고, 사건이 전개되기

도 하며 복잡한 주제를 드러내기도 한다. 작품을 읽거나 볼 때 슬머시 등장하는 꽃을 보며 그 상징성을 찾는 것은 한마디로 보물찾기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꽃은 작품에 몰입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이기도 하고, 상징으로 쓰인 것 덕분에 그 상징물만 보면 해당 작품을 떠올리게 된다. 이렇게 문화 매개체에서 사용된 꽃의 상징성은 어떨 때는 소중한 기억으로 박제되고, 또 어떨 때는 안타까운 장면으로, 벽찬 감동으로, 진실의 단서로, 생명의 소중함으로 이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 등 문화 매개체에서 꽃의 상징성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지 살펴보았다. 각 작품에서 꽃이 전개 과정 중 어느 지점에 등장하는지,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꽃의 이미지나 모양, 꽃말, 생리적 특성 등 꽃의 상징성 중 어떤 부분을 차용하고 있는지, 그러한 꽃의 상징성이 작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작품 속 꽃의 상징성을 찾는 즐거움과 더불어 자연, 채식, 초록, 식집사¹⁾, 원예치유 등 식물과 관련된 큰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이유를 ‘은유의 힘’(장, 2017)²⁾을 빌어 추론해 보았다.³⁾

1) 식집사는 ‘식물’과 ‘집사’를 합친 말로, 식물을 가족같이 돌보며 애정을 쏟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신조어이다(네이버 지식백과).

2) 은유가 없는 시는 관절이 없는 두 다리이며, 은유가 없는 세상은 가뭄으로 바닥이 갈라진 땅바닥이며, 은유 없는 사랑은 심장을 쓰지 않는 사랑이겠다. 이 척박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일으키는 먼지와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가슴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깊디깊은 주름 속에 함몰되고 말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은유의 힘이다[장석주, 2017, 은유의 힘, 다산북스, 추천사(이병률) 중에서].

II.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꽃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소설과 신화 12편, 영화 4편, 드라마 5편을 뽑았다(표 1). 소설의 경우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 위주로 12편을 선정하였다. 그러다 보니 2010년대 이후 작품이 12편 중 11편이고, 작가의 대표작 혹은 문학상 수상작 등 평단의 검증을 받은 작품이 대부분이다. 드라마와 영화의 경우 꽃이 주요 소재로 활용되거나 상징성이 강한 작품을 선정하였다. 또한 원예치유 프로그램에 활용할 목적이므로 소설의 경우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약간 어두운 시대적 배경과 삶의 여정이 힘겨워 보이더라도 그 속에서 위트와 농담이 녹아 있는 작품을 골랐으며, 드라마와 영화의 경우 등장인물의 상황을 들여다보며 ‘나’의 상황을 돌아볼 수 있는 작품 위주로 뽑았다.

장편소설 5편(<나의 아름다운 정원>, <두근두근 내 인생>,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 <순비기꽃 언덕에서>, <일곱 해의 마지막>), 중·단편소설 6편(<담장 너머 접시꽃>, <붉은 길>, <영희는 언제 우는가>, <풍니>, <프리페이드 라이프>, <하미연꽃>)과 신화 1편(<서산꽃밭 한락궁이>), 영화 4편(<러브 해프닝>, <레옹>, <모리의 정원>, <아무르>), 드라마 5편(<더킹: 영원한 제국>, <도깨비>, <러브 앤 아나키>, <작은아씨들>, <화양연화>)을 뽑았다.

이 작품들과 함께 꽃과 관련된 책, 즉 꽃의 상징을 역사적으로 기술한 <꽃을 읽다>, 식물학을 쉽게 설명한 <이일하 교수의 식물학 산책>, 사람을 꽃에 빗대어 나타낸 <화암수록>, 연구 방법이 다른 두 학자가 꽃으로 본 세상을 다룬 <인문학자와 자연과학자의 꽃으로 세상을 보는 법>, 한승원 작가의 산문집 <꽃을 꺾어 집으로 돌아오다>, 꽃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서술한 <꽃말의 탄생>, 문학 작품 속에 등장한 꽃을 다룬 <문학 속에 핀 꽃들>과 <문학이 사랑한 꽃들>, 그 외 <상징의 비밀>, <식물의 위로> 등을 참고자료로 삼았다(표 2).

표 1. 연구 대상 작품 목록.

종류	제 목	작가/감독	출판사	출판연도
소설	나의 아름다운 정원	심윤경	한겨레출판	2013
	담장 너머 접시꽃	정정화	실천문학	2022
	두근두근 내 인생	김애란	창비	2011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	윤정은	북로망스	2023
	붉은 길	김이정	강	2021
	서천꽃밭 한락궁이	김춘옥	봄봄	2011
	순비기꽃 언덕에서	서순희	문학과지성사	2012
	영희는 언제 우는가	공선옥	창비	2007
	일곱 해의 마지막	김연수	문학동네	2020
	풍니	김이정	강	2021
	프리페이드 라이프	김이정	강	2021
	하미연꽃	김이정	강	2021
영화	러브 해프스	브랜든 캠프	-	2009
	레옹	뤽 베송	-	1995
	모리의 정원	오키타 슈이치	-	2020
	아무르	미카엘 하네케	-	2012
드라마	더킹: 영원의 군주	김은숙	-	2020
	도깨비	김은숙	-	2016
	러브 앤 아나키	리자 랑세트	-	2020
	작은 아씨들	정서경	-	2022
	화양연화	전희영	-	2020

표 2. 참고문헌 목록.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기능
꽃을 읽다	Buckmann, Stephen	반니	2016	꽃의 상징을 역사적으로 기술함.
이일하 교수의 식물학 산책	이일하	궁리	2022	식물학을 쉽게 설명함.
화암수록	유박	휴머니스트	2019	사람을 꽃에 빗대어 나타냄.
꽃으로 세상을 보는 법	이명희, 정영란	열림원	2015	연구 방법이 다른 인문학자와 자연과학자의 꽃으로 본 세상을 다룸.
꽃을 꺾어 집으로 돌아오다	한승원	불광출판사	2018	소설가 한승원의 산문집.
꽃말의 탄생	Coulthard, Sally	동양북스	2022	서양 문화로 읽는 매혹적인 꽃 이야기.
상징의 비밀	Fontata, David	문학동네	2002	동서양 문화사에 등장한 다양한 상징과 그에 대한 해석을 다룸.
식물의 위로	박원순	행성B	2019	매일 조금씩 마음이 자라는 반려식물 이야기.
문학 속에 핀 꽃들	김민철	샘터	2013	야생화를 문학 속 예술적인 상징으로 다룬 에세이.
문학이 사랑한 꽃들	김민철	샘터	2015	야생화와 문학의 접점을 찾아내는 에세이.

2.2. 연구 방법

선정된 소설과 영화, 드라마에서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거나 주요한 소재로 쓰인 꽃의 상징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작품 속 꽃의 상징을 분석하기 위해 소설의 경우 출판사 홈페이지, 리뷰, 전문가 평론을, 영화와 드라마 역시 ‘브런치’ 등의 온라인 리뷰와 영화 전문 잡지 <씨네21> 등 전문가 평론을 참조하여 분석의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하였다. 다만 어떤 작품에서는 꽃의 상징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어 꽃의 상징성을 찾을 만한 자료들이 많은 데 반해 또 다른 작품에서는 꽃의 상징이 이야기에 거의 묻혀 평론 자료가 극히 드문 경우도 있었다. 이때는 인플루언서 블로그 등을 참조하였다.

한편 문화 매개체에서 다루는 주제는 매우 다양하다. 가령 희로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欲, 기뻐하고, 성내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욕심내는 것)이라는 칠정(七情)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범죄·차별·편견 등의 사회문제를 다루는 작품부터 미래사회를 밝게 내다보는 유토피아와 어둡게 바라보는 디스토피아, 그리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난을 다루는 작품 등 그 주제야말로 수도 없이 많다. ‘문학과 야생화’에 대한 이야기인 <문학 속에 핀 꽃들>과 <문학이 사랑한 꽃들>에서 저자는 주제를 전작에서는 ‘꽃, 향기에 취하다/ 꽃, 마음에 묻다/ 꽃, 세상에 맞서다/ 꽃, 삶을 만나다’로, 후작에서는 ‘청춘을 기억하다/ 사랑을 간직하다/ 추억을 떠올리다/ 상처를 치유하다/ 인생을 그리다’로 분류하였다. 이런 식의 분류 방법에 끌리기는 하지만, 이 같은 구분은 꽃이 중심이 아니라 다루고 있는 작품의 주제로 분류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작품의 주제가 아닌 작품에 드러난 꽃의 상징성을 중심으로 주제로 묶었으며, 의지, 사랑, 상실, 순환 성향, 생명 등 5가지이다. 작품 전체의 주제가 아닌 꽃이나 정원, 식물이 상징하는 것을 중심으로 분류한 것이다. 작품당 하나의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기도 하고, 영화 <모리의 정원>은 두 가지 주제로 묶기도 했다. 모리 부부의 언행에서 그들의 ‘순환 성향’을 찾을 수 있고, 정원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모리의 태도에서 ‘생명’에 대한 경외감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구성 방식은 각 작품의 핵심적인 줄거리와 함께 꽃(정원, 식물 포함)이 어떤

상징으로 쓰였는지를 서술하고, 각 작품에 등장한 꽃 이름과 학명, 작품 속 꽃을 활용한 방법 및 개화 특성, 꽃말을 표에 담아냈다. 마지막으로 원예치유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업안을 만들어 작품 속 꽃의 상징성과 원예치유를 접목해 보았다.

Ⅲ. 결과 및 고찰

3.1. 의지

<순비기꽃 언덕에서>, <더킹: 영원의 군주>, <나의 아름다운 정원>, <프리페이드 라이프> 등에서 꽃이 의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각 작품별 꽃의 상징은 다음과 같다.

소설 <순비기꽃 언덕에서>는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아 걷지 못하게 된 주인공 봉희의 시선으로 1970년대 산업화 시기를 겪으면서 일어난 사건을 다룬다. 자그마한 바닷가 마을에 화력발전소를 세운다는 계획이 발표된다. 그러자 개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과 고향 마을을 잃는 걸 죽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갈등을 빚는다. 어쨌든 마을이 없어지는 걸 자기 존재가 없어지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더 많다. 거센 바닷바람에도 꽃을 피워 견디는 순비기꽃, 마을 사람들 역시 낮은 곳에서 살아가지만 삶의 거센 풍파에도 서로를 의지하며 견뎌내는 모습이 순비기꽃과 닮아 있다. “아주 낮게 피고 볼품도 없지만, 어떤 바람도 견뎌내는 알고 보면 너무 아름다운 순비기꽃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이야기를 전한다.”(문학과지성사 홈페이지, 2012).

드라마 <더킹: 영원의 군주>는 대한제국 시대와 대한민국이 공존하는 평행이론을 다룬다. 대한제국의 황제 이곤(이민호 분)과 대한민국의 형사 정태을(김고은 분)은 동시간대, 동일인물이지만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 이들은 차원의 문을 통해 서로의 세계를 오가는데, 이곤이 차원의 문을 넘을 때 상사화를 가져와 정태을에게 준다. 정태을은 이곤의 세계에서 상사화 씨앗⁴⁾을 가져와 차원의 문 부근에, 그리고 자신의 집에 꽃씨를 심는다. 다른 차원에서는 생명이 싹틀 수 없다고 했지만, 상사화 씨앗은 싹을 틔운다. 상사화의 꽃말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

4) 상사화는 구근(인경, bulb)을 심어 싹을 틔우는 식물인데, 드라마에서는 씨앗을 심는 것으로 나온다.

랑’인데, 이 드라마에서는 상사화 씨앗이 싹을 틔우며 불가능한 일이 기적으로 바뀌는 순간을 표현한다. 이는 이곤을 향한 태을의 사랑이며 의지인 것이다.

소설 <나의 아름다운 정원>은 난독증이 있는 동구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을 표현하고 있다. 언덕 꼭대기에 어렵게 집을 구한 동구네 가족, 그 집에는 아주 자그마한 텃밭이 있다. 할머니는 어떡하든 그곳에 각종 채소를 심어 먹고사는 데 보탬이 되려 한다. 반면에 살림꾼 엄마는 채소 수확을 마친 빈 텃밭에 꽃을 심어 정원으로 가꾸려 한다. 동구 어머니는 빠듯한 살림이지만 정원을 가꾸 나름대로 ‘소소한’ 사치를 누릴 계획이었다. 이를 본 할머니는 꽃을 몽땅 뽑아 변소에서 피운 똥물과 섞은 뒤 텃밭에 끼얹는다. 한편 동구가 사는 동네에 3층짜리 커다란 집이 있는데, 동구는 열린 대문 안쪽으로 정원을 들여다본다. 그곳에서 동구는 화려한 능소화가 만발해 있는 것을 발견한다. 동구는 자신의 자랑거리였던 죽은 동생 영주와 광주민주화항쟁 때 죽음을 맞이한 박은영 선생님, 그리고 꽃을 가꾸고 싶어 하는 엄마, 강직한 삼촌 등과 언덕배기 동네에서 살았던 어린 시절의 추억과 함께하고픈 의지를 삼층집 정원에 핀 능소화에 담는다(심, 2013).⁵⁾ 한편 “능소화 꽃줄기가 좌우 대칭으로 올라가는 게 제단의 촛대 같다.”(이, 2016).

소설 <프리페이드 라이프>는 소설책을 5권이나 낸 작가이지만, 성실히 살았음에도 궁핍한 삶에서 놓여나지 못한 50대 여성 ‘나’가 주인공이다. 어느 날 버스 안 룸미러 속 ‘데드마스크’ 같은 자신의 얼굴을 보고 무작정 인도행 비행기표를

5) “정원이 지상 최고의 아름다움을 넘어서 천상계의 아름다움에 도달하는 시기는 더위가 폭폭 찌는 8월, 바로 요즈음이다. 삼층집의 지붕 높이까지 닿는 키 큰 느티나무를 따라 올라간 능소화가 주황색 꽃을 피우는 때다. 능소화는 잎도 크고 꽃도 굵다. 큰 잎, 큰 꽃이 그악스럽게 무성하지 않고 성글게 자리잡고 있어 보기에다 여유롭다. 특히 잎과 꽃 사이로 축축 늘어진 한가로운 덩굴가지는 바라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지금은 워낙 더운 때라서 선들바람을 만나기가 힘들지만 어찌다 운 좋게 한 줄기 바람이라도 지나가면 거대한 느티나무의 폭포수 같은 잎 사이에 드문드문 늘어져 있는 손바닥만한 능소화 꽃과 덩굴가지들이 건들건들 흔들린다. 사각사각 소리를 내는 주황색 능소화 꽃과 늘어진 덩굴 사이로 가슴이 태양같이 환한 새가 씨실처럼 드나들며 부산함을 더하면 아름다운 정원의 영광은 가히 폭발할 지경에 달한다”(심윤경, 2013, 나의 아름다운 정원, 한겨레출판사, p. 244).

예매한다. 갚아도 갚아도 줄지 않는 대출금과 대출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 온 “나는 이제 그들의 돈을 갚지 못하게 되더라도 더 이상 도덕적으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이미 원금의 몇 배나 되는 이자를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김, 2021c). 인도에 온 ‘나’는 바라나시의 가트에서 강가로 밀려온 노란 꽃목 걸이들을 발견한다. 힌두의 신들에게 바치는 주황색 메리골드⁶⁾였다. 인도 여행의 마지막 전날, 가트에서 꽃불을 산다. 꽃불은 야자 잎으로 만든 접시 한가운데에 작은 코코넛 초를 놓고 메리골드로 동그랗게 장식한 ‘디아’였다. 보트를 타고 나가 어두워진 강에 꽃불을 띄우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자신을 잃은 삶이 야말로 가장 부도덕한지도 몰라. 어떻게든 나를 회복하기 위해 살 거야.”(김, 2021c)라며 ‘나’는 삶의 의지를 다진다.

6) 메리골드는 마리골드 또는 매리골드(*Tagetes spp.*)의 오자.

표 3. '의지'로 상징된 꽃

작품명	식물명/ 학명	작품 속 꽃(식물)의 활용	개화 특성 및 꽃말	사진
순비기꽃 언덕에서	순비기나무 <i>Vitex rotundifolia</i>	식물 특성 : 바닷가, 척박한 자갈밭에 주로 서식하고 낮은 나무줄기에서 자라는 것과 거센 비바람에도 피어 견디는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비유함. 꽃 모양 : 수수하고 작은 꽃. 강렬한 향기도 화려한 생김새도 없는 꽃.	개화 특성 : 꽃은 7~9월에 피며, 가지 끝 원추화서에 보라색 소화가 뺨뺨하게 모여 폼. 꽃말은 그리움.	
더킹: 영원의 군주	상사화 <i>Lycoris squamigera</i>	꽃말의 반전 : 평행세계의 법칙을 깨고 다른 세계로 온 꽃씨가 싹을 틔우는 기적이 일어나며 사랑을 이룸.	개화 특성 : 꽃은 8월에 피며, 여름철 앞이 마른 뒤에 꽃대가 올라옴. 꽃말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나의 아름다운 정원	능소화 <i>Campsis grandiflora</i>	꽃 모양 : 밝은 주황색 꽃잎, 큰 잎과 큰 꽃인 능소화는 그들의 영광을 드러냄. 꽃말 : 영광, 명예라는 꽃말을 가진 능소화는 나의 아름다운 정원을 대변함.	개화 특성 : 꽃은 8~9월경에 피고 가지 끝에 원추화서를 이루며 5~15개의 소화가 달림. 꽃말은 명예, 영광.	
프리페이드 라이포	마리골드 <i>Tagetes patula</i>	인도의 풍습 : 힌두의 신들에게 꽃을 바치며 다 시 태어나지 않기를 빌. 꽃말 : 자신을 회복하려는 의지는 꽃말인 행복과 연결됨.	개화 특성 : 춘파일년초로 주황색 또는 황색 꽃이 초여름에서 가을까지 폼. 꽃말은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	

사진 출처 : 상사화, 드라마 <더킹: 영원의 군주>, 넷플릭스 캡처/ 능소화, 위키피디아/ 마리골드, PictureThis

3.2. 사랑

<도깨비>, <아무르>, <두근두근 내 인생>,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 <러브 해픈스>, <화양연화> 등에서 꽃이 사랑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각 작품별 꽃의 상징은 다음과 같다.

드라마 <도깨비>에는 메밀꽃이 두 사람의 순백한 사랑처럼 등장한다. 지은탁(김고은 분)이 세상에 홀로 남아 힘겨워할 때 도깨비 김산(공유 분)은 말린 메밀꽃 다발을 건넨다. 이때는 둘의 운명도 모른 채 여고생 지은탁이 가여워 꽃을 준 것뿐이었다. 김산은 900여 년째 불멸의 삶을 살고 있는 도깨비, 그 삶을 끝내려면 도깨비 신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후 다른 생에서 만난 두 사람은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는데, 이때도 신부는 메밀꽃 부케를 들고 있다. 메밀꽃은 도깨비와 도깨비 신부의 운명을 상징하는 꽃인데, 어떡하든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메밀꽃의 꽃말은 ‘연인’이다.⁷⁾

영화 <아무르>는 창문이 모두 활짝 열린 집 안으로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꽃이 뿌려진 침대 위의 검은 옷을 단정하게 입은 할머니의 시체가 발견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80대의 노부부 조르주(장-루이 트린티냥 분)와 안느(에마뉘엘 리바 분), 어느 날 갑자기 안느는 질병에 걸린다. 조르주가 아내를 돌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몸도 불편한 데다 대화 자체도 안 되는 아내의 처지 등 질병과 현실적인 고통에 짓눌려 간다. 조르주는 아내 안느가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베개로 눌러 질식시키고, 자신도 생을 마감한다. 늙음과 병듦과 간병은 도둑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마지막에 이르러 보여주는 조르주의 행동에 누구도 쉽사리 윤리적 잣대를 가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보다 상대를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하기에 내릴 수 있는 결정이기 때문이다.”(김, 2012). 첫 장면에서 본 것처럼 우아하게 단장된 안느, 훌쩍린 듯 놓인 꽃들이 안느의 우아한 자태를 돋보이게 한다. 질병에 걸려 쓰러지고 치매에 걸려 대화도 할 수 없는 아내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꽃같이 아름다운 아내를 우

7)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함께 걸어갈 모든 길과 함께 바라볼 모든 풍경과 수줍게 설레게 묻고 답할 모든 질문과 대답들과 그 모든 순간의 당신을 사랑합니다.”(<https://tvn.cjenn.com/ko/dokebi/>)

아하게 떠나보내려는 사랑하는 마음이 돋보인다.

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은 남들보다 빨리 늙는 조로증에 걸려 투병하는 17살 아름이 이야기다. 아름이와 마찬가지로 불치병(골수암)에 걸린 동갑내기 여자친구 서하와 이메일을 주고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 번은 서하가 “스님이 나더러 도라지꽃같이 생겼다고 하더라.”(김, 2011)라고 한다. 그러다 아름이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고, 그때 담당 프로듀서가 아름이의 노트북 바탕화면을 보고 “걸그룹도 많은데 웬 도라지꽃이니, 늙은이같이.”(김, 2011)라고 말한다. 그동안 아름이가 서하를 그리워할 때 도라지꽃을 떠올린 것이다. 둘 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아름이에게 서하는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일 터이기 때문이다(우면산, 2022).

소설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에는 메리골드라는 마을에서 마음 세탁소를 운영하는 주인공 지은이가 상처 입은 사람들의 얼룩을 지워주고 주름을 펴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주인공에게 이 같은 작업은 부모님을 만나고 자신을 찾는 과정이기도 하다. 마음 세탁을 마치고 나면 지은은 옥상에 올라가 노을을 바라보며 의식을 치른다(윤, 2023).⁸⁾ 한편 이 책에는 동백, 마리골드, 물망초가 상징적으로 나온다. 우선 세탁소 주인 지은은 동백꽃이 그려진 원피스를 입는다. ‘누구보다 당신을 애타게 사랑하고 기다렸어요.’라는 꽃말의 동백꽃은 50세기가 넘도록 환생한 지은의 엄마 아빠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이라는 꽃말을 가진 마리골드는 오랫동안 부모님을 그리워한 지은에게 행복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상징한다. 파란 물망초 꽃잎은 꽃비로 내려 웅덩이가 되고, 호수가 되고, 바다가 되고, 물거품이 되고, 내가 바다가 되고, 하늘이 되고, 푸른빛이 되고, 꽃잎이 된다. 드디어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 주인은 자유를 얻는다.

8) “사람들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깨끗하게 지워져서 다시 삶을 사랑할 수 있길 애타게 바라는 마음으로 이 꽃잎을 하늘로 보내요. 그래서 노을 지는 시간에 보내요. 열렬히 타오르라고”(윤정은, 2023,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 북로망스, p. 133).

“매일 오후 지는 해를 향해 날아가는 꽃잎들은 사람들 마음의 얼룩에서 나온 상처예요. 잘 말라서 꽃이 된 상처를 해를 향해 보내요. 뜨거운 태양빛에 타서 빛이 되고 밤에는 별이 되기도 해요”(윤정은, 2023,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 북로망스, p. 200).

영화 <러브 해프스>는 사랑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한다는 주제를 다룬다.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은 버크(아론 에크하트 분)는 큰 슬픔에 잠겨 있다가 아내와의 인연을 기록한다. 이 일기 같은 글은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에 힘입어 버크는 동기부여 상담사가 된다. 그러나 정작 버크는 술을 옷장에 넣고 마시며,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한다. 버크는 꽃집을 운영하는 엘로이즈(제니퍼 애니스톤 분)를 우연히 만나고 아내를 잃은 지 3년 만에 데이트를 한다. 그는 엘로이즈에게 아내의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을 얘기한다. 3월에 달리아가 가득했다고. 하지만 달리아는 여름에 피는 꽃, 이 영화에서 달리아는 거짓의 우물에서 진실을 건져 올리는 역할을 한다. 3년 전 도로에서 개를 만나 핸들을 꺾은 사람은 버크였으며, 아내가 죽은 이후 죄책감과 깊은 슬픔으로 아내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던 것이다. 자신을 속이고 슬픔을 이겨낸 척 지낸 버크는 사랑에 다가가기 위해 진실한 태도를 보인다.

드라마 <화양연화>는 삶이 꽃이 되는 순간을 그리고 있다. 한재현(유지태 분)은 젊은 날 연인이었던 윤지수(이보영 분)와 다툼이 있고 난 후 화해하자며 빨간 장미와 흰 장미를 건넨다. 그 후 20여 년이 지나고 나서 변질된 자신을 돌아보고 “젊은 날, 나로 돌아갈 거야.”라고 선언하는 재현. 젊은 날 재현은 ‘지는 편이 내 편이며 지수의 신념이고 세상’이었다. 둘의 재회는 삶이 꽃이 되는 순간이었다(이, 2020b). 재현은 또다시 지수에게 화해의 의미로 빨간 장미와 흰 장미 꽃다발을 건네려 하는데, 장미 꽃다발을 든 재현의 표정은 그야말로 사랑 그 자체이다. 한편 영화 <우리의 성>에도 장미꽃과 관련된 장면이 나온다. 남자친구(여명 분)에게 받은 장미꽃을 화병에 꽂기 전 화병의 물속에 아스피린 한 알을 넣는 장면이다. 꽃이 시들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되기를 바라는 여주인공의 심리를 묘사한 것이다.9)

9) 식물의 2차대사물질은 천연의약품이라 할 것이다. 식물이 2차대사물질을 만드는 이유는 생존을 위해서이다. 이것은 식물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생산하는 물질들로, 때론 식물의 잎을 따먹는 초식동물을 물리치기 위해, 때론 식물에 병을 일으키는 세균과 곰팡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산되는 의약품으로 손꼽히는 것이 아스피린이다. 아스피린은 식물의 병저항성 호르몬 중 하나인 살리실산을 변형시켜 만든 약품이다. 살리실산은 버드나무 잎에 많은 양이 포함되어 있다. 인간에게 치유능력이 있는 아스피린, 살리실산은 식물에게도 치유능력이 있다. 살리실산은 식물에 세균, 곰팡이 등이 침투하면 제일 먼저 생산되는 물질로서, 식물의 병저항성 기작을 유도하여 병원체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이일하, 2022, 이일하 교수의 식물학 산책, 궁리, 서울, p. 103).

표 4. '사랑'으로 상징된 꽃




작품명	식물명/ 학명	작품 속 꽃(식물)의 활용	개화 특성 및 꽃말	사진
도깨비	메밀 <i>Fagopyrum esculentum</i>	전설 : 예부터 도깨비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메밀목. 도깨비에게 불멸의 삶을 살도록 저주한 장소도 메밀밭이었음. 꽃말 : 연인이라는 꽃말을 가진 메밀꽃은 도깨비 신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부케를 들 때까지 반복적으로 등장함.	개화 특성 : 7월에 꽃이 피며, 서늘하고 습한 기후에서 잘 자람.	
아무르	-	꿈계 단장해 놓은 아내의 시신, 머리맡에 흘뵈린 생화 꽃잎들은 여전히 사랑하는 아내임을 보여줌.	-	
두근두근 내 인생	도라지 <i>Platycodon grandiflorus</i>	꽃말 :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도라지꽃은 조로증에 걸린 아름이가 골수 암에 걸린 서희를 향한 마음을 상징함.	개화 특성 : 6~8월에 보라색 또는 흰색의 꽃이 피며, 별처럼 다섯 갈래로 갈라진 통꽃임. 꽃말 은 영원한 사랑.	

사진 출처 : 메밀, tvN 드라마 <도깨비> 방송 캡처/ 영화 <아무르>, 넷플릭스 캡처/ 도라지, 위키피디아

표 4. ‘사랑’으로 상징된 꽃(계속).



작품명	식물명/ 학명	작품 속 꽃(식물)의 활용	개화 특성 및 꽃말	사진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	마리골드 <i>Tagetes patula</i>	꽃말 :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이라는 꽃말을 가진 마리골드는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주인공이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것을 상징함.	개화 특성 : 춘파일년초로 주황색 또는 황색 꽃이 초여름에서 가을까지 핀. 꽃말 은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	
리브 해폰스	달리아 <i>Dahlia pinnata</i>	꽃 피는 시기 : 3월에 달리아를 봤다는 베키의 말에 엘로이즈는 거짓말임을 알아챈다. 베키는 진실한 사랑을 위해 거짓의 우물에서 나눔.	개화 특성 : 7~8월에 흰빛, 붉은빛, 노란빛 등 꽃색이 다양한 꽃을 피움. 두상화 지름이 5~7.5cm이며 더 큰 것도 있음. 꽃말 은 불안정.	
화양연화	장미 <i>Rosa hybrida</i>	꽃말 : 빨간 장미와 흰 장미는 통합 또는 화해의 의미를 갖고 있음. 이 화해의 꽃다발은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를 이루며, 사랑으로 발전함.	개화 특성 : 흰색, 붉은색, 노란색, 분홍색 등 꽃색이 다양하고, 5월 중순부터 9월까지 꽃피는 시기의 차이가 큼. 꽃말 은 화해.	

사진 출처 : 마리골드, PictuerThis/ 달리아, 위키피디아/ 장미, tvN 드라마 <화양연화> 방송 캡처

3.3. 상실

<영희는 언제 우는가>, <일곱 해의 마지막>, <작은 아씨들>, <붉은 길>, <담장 너머 접시꽃> 등에서 꽃은 상실의 의미로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각 작품별 꽃의 상징은 다음과 같다.

소설 <영희는 언제 우는가>는 여름휴가 때 친구 영희네 집에 놀러 갔다가 만난 영희 남자친구의 친구인 ‘그’. 어두운 밤에 넷은 복숭아를 나눠 먹으며 얘기를 나누다가 ‘나’는 졸음을 참지 못한다. 언뜻 눈을 떠보니 그는 내게 그의 겹옷을 덮어주었다. 그가 “알아요? 이제 방금 망초꽃¹⁰⁾이 피었어요.”(공, 2007; 김, 2019)라고 말한다. 세월이 흘러 상갓집[영희 남편 상]에 가는 길, 나와 그는 고속버스에서 만나지만 그는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그의 미색 코트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그’라는 것을 알아챈다. 장례식 마지막 날, 그는 떠난다. “내 가슴 저 밑바닥에서 무슨 소린가가 울리다가 사라졌다. 그것은 지극히 한순간이라, 그 소리가 뭔가, 얼른 알아채지 못했다. 그것은 세월 저편의 기억이 화들짝 깨어나는 소리. 그것은 망초 꽃가루 화르르 떨어지는 소리. 그것은 바람에 별이 씻기는 소리”(공, 2007). 처녓적 한때 품었던 ‘그’에 대한 연정은 망초 꽃가루가 화르르 떨어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상실되어 버린다.

소설 <일곱 해의 마지막>은 전쟁 이후 시인 백석의 알려지지 않은 삶을 주인공 ‘기행’을 통해 상상하여 들여다본 작품이다. 기행은 6월에 친구 결혼 피로연에 참석하러 통영에 갔다가 한 여인을 만나고, 사랑 고백까지 했지만 집안이 기운다는 이유로 청혼을 거절당한다. 이후 첫 시집을 내려고 할 때 친구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시집 제목? 저문 6월의 수선이라고 할까 봐.”, “수선? 저문 6월의 수선?”, “아니, 수선화에 비길 만한 미인을 처니(처녀)라고만 말하면 누가 알아듣는가?”(김, 2020a). 기행, 아니 백석에게 그 여인은 친구의 말대로 수선화 같은 사람이

10) 개망초는 꽃 모양을 제대로 갖춘, 그런대로 예쁜 꽃이다. 흰 허꽃에 노란 중심부를 보고 아이들이 ‘계란꽃’ 또는 ‘계란후리이꽃’이라 부른다. 반면 망초는 꽃이 볼품없이 피는 듯 마는 듯 지는 식물이다. 식물 이름에 ‘개’ 자가 들어가면 더 볼품없다는 뜻인데, 개망초꽃은 망초꽃보다 더 예쁘다. 망초라는 이름은 개화기 나라가 망할 때 들어와 전국에 퍼진 풀이라고 붙여졌다(김민철, 2019, 서울 화양연화, 목수책방, p. 166).

었다. “시인으로 기억되지도 못했고,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도 못했으며 시골 학교의 선생이 되지도 못했다.”(김, 2020a)는 고백도 들어 있다(김, 2022).¹¹⁾

드라마 <작은 아씨들>에는 유령 난초¹²⁾가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단초 역할을 한다. 유령 난초는 엄마의 상실로 유령처럼 살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권력과 재산을 차지하려고 온갖 불법과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딸의 삶을 빗댄 것이다. 남편의 비위 행위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폭로하겠다는 아내를 8년 동안이나 방에 가두고, 딸 원상아(엄지원 분)는 갇힌 엄마를 만나는 정도로도 만족했는데, 엄마는 끝내 자살하고 만다. 이 드라마에서 유령 난초는 죽음의 현장에 반드시 등장한다. 유령 난초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드라마 속 유령 난초는 큰 나무에 기생하는 꽃이며, 특유의 독으로 사람에게 환각 증세를 일으켜 자살을 하게 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꽃이다(플라워키피어, 2022). 딸 원상아에게 유령 난초는 자신을 떠나버린 엄마에 대한 상실과 그 상실을 보상받으려는 수단으로 작동한다.¹³⁾

소설 <붉은 길>에는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난 그녀를 향한 ‘나’의 인도 여행을 다

11) 백석이 시인 신석정에게 보낸 수필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남쪽 바닷가 어떤 낡은 항구의 처녀 하나를 나는 좋아하였습니다. 머리가 까맣고 눈이 크고 코가 높고 목이 빼고 키가 호리낭창하였습니다. 총명한 내 친구 하나가 그를 비겨서 수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제는 나도 기뻐서 그를 비겨 수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나의 수선이 시들어갑니다. 그는 스물을 넘지 못하고 또 가슴의 병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만하고, 나의 노란 슬픔이 더 떠오르지 않게 나는 당신이 보내주신 맑고 고운 수선화의 폭을 치어놓아야 하겠습니다.”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2/03/01/YW6LJ5E67JDKBKZPYELF3EJ3UY/)

12) 마치 이빨의 날을 세운듯 한 이 하얀 꽃이 일명 유령 난초(Ghost Crchid)이며, 실제로 플로리다에 서식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 발견했다고 한다. 하네요. 드라마 <작은 아씨들> 속 유령 난초가 조금 더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수염처럼 늘어뜨린 줄기를 제외하고는 전혀 달라 보인다. 그러나 실존하는 유령 난초를 모티브로 드라마 속 유령 난초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기생 난초’라는 점이다(플라워키피어, 2022).

13) 난초는 식물 중에서 가장 진화한 그룹이다. 난초과는 식물군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학계에 알려진 것만 3만여 종에 이른다. 난초는 가장 진화한 식물답게 꽃가루받이를 해줄 곤충을 유인하기 위해 교묘한 속임수를 쓰는 종이 많다. 색깔이나 향기, 생김새 등에서 난초의 위장술은 식물학자들 도 놀랄 정도다(김민철, 2019, 서울 화양연화, 목수책방, p. 219).

루고 있다. 그녀는 영어강사이고, 그녀의 그녀는 요가강사로 5년 전 소식 하나 남기지 않고 남인도의 마이소르로 가버렸다. 그녀 역시 학교 선생인 ‘나’를 두고 그녀의 그녀에게로 떠나버린다. 남인도 붉은 길을 걷다가 길을 잃어 그녀에게 연락해 보려 마음먹지만 끝내 버튼을 누르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로 가는 길은 가시나무로 덮인 초원에서 길을 잃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이어 “환했다, 지상의 모든 어둠을 걷어낼 수 있을 만큼, 네 미소는 봄햇살처럼 환했다.”(김, 2021a)라며 복수초를 떠올린다. “향일성이어서 햇빛이 없으면 피지 않는 꽃”이고, “노란 피가 흐를 것 같던 꽃잎의 잎맥까지 햇빛에 흰히 드러나던 복수초”(김, 2021a)를 그녀와 동일시한다. ‘나’는 그녀를 향해 남인도로 갔지만 그곳에서 그녀를 지운다. 소설가 한승원은 “민들레꽃의 색깔이 서민적으로 질박하게 보인다면 복수초꽃의 색깔은 귀족처럼 고고하고 기품이 있어 보인다.”¹⁴⁾고 적고 있다(한, 2018).

소설 <담장 너머 접시꽃> 남편의 고향으로 이사 온 ‘나’는 “행한 마당에는 잔디를, 담장 앞에는 나무와 꽃을 심었다. 씨앗에서 싹이 터서 자라고, 첫 꽃송이가 개화하는 순간 가슴이 설렸다. 접시꽃은 아래쪽부터 연이어 꽃망울을 터뜨렸다. 빨강, 하양, 분홍 접시꽃이 마당을 빙 둘러선 모습을 바라볼 때면 접시꽃을 노래한 시가 생각났고, 꽃이 되는 상상에 빠져들곤 한다.”(정, 2022). 이렇게 새로운 공간에서 남편의 놀이를 즐기던 차에 남편은 불편하고 지저분하다며 접시꽃을 모조리 베어버린

14) 철쭉나무들 사이사이에서 복수초들이 솟아올라 꽃을 터뜨렸다. 찬란한 황금색 꽃잎이다. 민들레꽃처럼 생겼는데, 색깔이 더 찬란하고 아름답고 곱다. 민들레꽃의 색깔이 서민적으로 질박하게 보인다면 복수초꽃의 색깔은 귀족처럼 고고하고 기품이 있어 보인다. 그것은 ‘얼음새꽃’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눈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라는 것이다. 꽃말이 ‘영원한 행복과 장수를 빈다’는 것인데, 영어로는 ‘아도니스(adonis)’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소년 아도니스는 아프로디테와 비너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멧돼지에게 물려 죽었다. 그 아도니스가 죽은 자리에서 꽃이 솟아올랐고, 그것이 복수초 꽃이다. 신화 속에 나오는 미소년의 고결한 기품이 느껴진다. 연금술사가 황금을 두들기고 조탁해서 꽃잎을 만들어낸 듯싶다(한승원, 2018, 꽃을 꺾어 집으로 돌아오다, 불광출판사, p. 105).

“복수초는 열을 만들어내는 식물이다. 차가운 눈을 녹여 꽃잎을 내뿜고 꽃잎은 반사판 역할을 함으로써 열을 꽃잎 안으로 집중시켜 그 따스함을 찾아 곤충들이 모이게끔 하는 것이다”(이굴기, 2016, 내게 꼭 맞는 꽃, 궁리, p. 19).

다. 접시꽃을 살려내라는 나와 ‘미친년’이라고 맞받아친 남편, 접시꽃이 사라진 이후 나는 삶의 의욕마저 없어진다. 부아가 난 나는 산책로를 걷다가 거센 빗줄기에 쓰러지고 만다. 이후 낯선 공간에서 깨어난 나는 은아의 도움을 받는다. 은아는 여행지에서 만난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나서 이곳 숲속에 자리잡았다고 한다. 서로의 사정을 나눈 뒤 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키스를 한다. “상처받은 사람 끼리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정, 2022). 그날 이후 나는 은아의 집에 가지 않는다. ‘내 안의 출렁이는 강물소리’를 들을 뿐이다(정, 2022).¹⁵⁾

15) 정정화에게 꽃은 여러모로 주요한 소재인 듯하다. 피어나기 위한 일련의 과정과 절정에 이른 화사함 뒤에 서서히 시들어가는 모습이 마치 인생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여기는 건 아닐까. 게다가 이 꽃을 통해서 인물이 이전의 일상과는 전혀 다른 공간으로 진입해 나가는 과정은 관습을 전복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관계 형성 내지 기존 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정정화, 2022, 꽃눈, 실천문학, 작품해설(정재훈) 중에서].

표 5. '상실'로 상징된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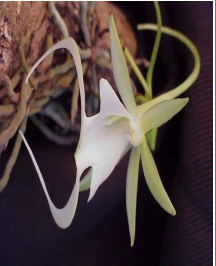
작품명	꽃이름/ 학명	작품 속 꽃 활용	개화 특성 및 꽃말	사진
영희는 언제 우는가	망초 <i>Erigeron canadensis</i>	계절적 배경 : '그'가 망초꽃이 피었다고 말한 것은 그저 여름이라는 계절을 나타냄. 망초 꽃가루 : 망초와 망초 꽃가루는 '그'와 동일시되는 상징임. '망초 꽃가루가 화르르 떨어지는 소리'는 사랑의 상실을 뜻함.	개화 특성 : 7~9월에 두상 화서로 피며, 백색 설상화로 핀. 꽃말 은 화해.	
일곱 해 마지막	수선화 <i>Narcissus tazetta</i>	꽃 이미지 : 백색이 한눈에 반한 여인의 이름 담고 고결한 모습을 수선화에 비유함.	개화 특성 : 내한성이 강한 추식구근으로 이른 봄에 꽃이 핀. 꽃말 은 고결, 신비.	
작은 아씨들	유령 난초 <i>Epipogium aphyllum</i>	꽃 이름 : 일명 유령난초라 불리는 것에 착안 하여 원상아의 가짜 길은 삶에 비유. 한편 꽃말인 영성은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을 뜻하는데, 드라마에서는 유령난초의 향기를 맡으면 환각 증세가 나타난다는 설정을 해놓음.	개화 특성 : 6~8월에 꽃이 피며, 잎이 없는 착생란이며, 나무줄기에 서식함. 꽃말 은 영성.	

사진 출처 : 망초, 위키피디아/ 수선화, 위키피디아/ 유령 난초, 블로그 플라워키퍼 캡처

표 5. '상실'로 상징된 꽃(계속).



작품명	꽃이름/ 학명	작품 속 꽃 활용	개화 특성 및 꽃말	사진
붉은 길	복수초 <i>Adonis amurensis</i>	꽃 이미지 : 그녀의 환한 이미지는 햇빛을 받아 꽃앞의 앞백까지 흰히 드러나던 복수초와 겹친.	개화 특성 : 2~3월에 꽃이 피며, 꽃은 줄기 끝에 한 개씩 달림. 열음을 뚫고 나와 봄을 알림. 꽃말 은 영원한 행복과 장수.	
담장 너머 접시꽃	접시꽃 <i>Althaea rosea</i>	꽃이 피어나는 순서 : '나'는 접시꽃을 바라보며 자신이 꽃이 되어가는 것을 상상함. 접시꽃이 아래에서부터 차례차례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며 자신의 욕구를 하나씩 하나씩 관찰하고 자각함.	개화 특성 : 6~9월에 피며,엽액에서 짙은 자루가 있는 꽃이 아래쪽에서 피어 위로 올라감. 꽃말 은 편안.	

사진 출처 : 복수초, 위키피디아/ 접시꽃, 위키피디아

3.4. 순한 성향

<러브 앤 아나키>, <레옹>, <모리의 정원> 등에서 꽃은 순한 성향을 상징한다(표 6). 각 작품별 꽃의 상징은 다음과 같다.

드라마 <러브 앤 아나키>는 2020년에 제작된 스웨덴 작품으로, 러브(love, 사랑)와 아나키(anarchy, 무정부주의)가 결합된 것이 어떤 의미일까 궁금해진다. 소피(이다 엠블 분)는 결혼생활 동안 남편의 삶의 방식대로 살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 비정규직 IT서비스 직업을 가진 막스(비에른 모스텐 분)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높은 청년이다. 소피의 아버지는 소피가 어릴 적부터 정부 정책에 대해 피켓 시위를 하는 등 엄격한 무정부주의자여서 소피는 아버지같이 살지 않으려고 애쓴다. 그럼에도 “자기답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유일한 사람이 소피의 아버지다. 출판사라는 공간에서 소피와 막스는 엉뚱한 게임을 하면서 점차 서로에게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소피는 억눌려 있던 진짜 감정을 되찾게 되고, 막스는 불투명했던 자신의 미래를 조금씩 희망으로 채워나가는 법을 배운다. 엉뚱하면서도 일탈행위를 하는 막스의 침대 위에도 벽에도 선반에 가지런히 놓인 화분과 꽃병, 식물등을 켜놓은 장까지 식물을 잘 기르는 장면이 나온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책을 들고 있으면 그 자체로 멋진 장식이 될 수 있듯이, 식물을 잘 가꾸는 식물집사 막스에게서 ‘초록 식물’의 순한 성향을 엿볼 수 있다(영래, 2020; 포포필름, 2020).

영화 <레옹>은 한 손엔 우유 2팩, 다른 한 손엔 화분 하나를 든 어린아이 레옹(장 르노 분)과 단발머리에 초커 목걸이를 한 아이어른 마틸다(나탈리 포트만 분)가 주인공이다. 킬러 레옹은 <언제나 맑음>이라는 영화를 보고 아글라오네마¹⁶⁾를 창가에 두고 알뜰살뜰 보살핀다(박, 2019). 비록 킬러지만 햇빛을 쬐여 주려고 창가에 잠시 놔둔다거나 이파리를 닦아주는 등 아글라오네마를 정성껏 가꾸는 레옹의 모습에서 그의 순한 성향이 그대로 느껴진다. 마틸다는 부패한 경찰 스탠스 필드(제리

16) “아글라오네마를 보면 기분이 유쾌해진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는 긍정적 마인드의 소유자다. 아글라오네마를 곁에 두면 항상 기분이 좋고 웬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박원순, 2019, 식물의 위로, 행성B, p. 170).

올드만 분)가 자신의 부모를 죽이자 레옹을 찾아가 복수의 칼날을 간다. 킬러가 되
고자 레옹을 찾지만 레옹은 마틸다가 킬러 되는 것을 반대한다.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 잠도 자고 뿌리도 내릴 거야.” 하지만 레옹의 희망은 그의 죽음으로 물거품처
럼 사라진다. 레옹의 죽음 앞에 마틸다는 레옹을 위해 그의 분신과도 같은 아글라
오네마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마당에 심는다(네이버, 2023). 이 장면은 드라마 <화
양연화>에서 오마주된다.

영화 <모리의 정원>은 실존인물이었던 일본의 근대화가 구마가이 모리카즈의 소
소하지만 그림 같은 일상을 담아낸다. 정원에 한 번 나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모리(야마자키 츠토무 분), 식사 때가 되거나 손님이 방문했을 때 아내 히데코(키키
키린 분)는 그를 목청껏 부르고 대답이 없으면 정원의 이곳저곳을 찾아다닌다. 생명
의 건강함과 소중함으로 가득한 정원에서 모리는 초미세 렌즈나 잡아낼 수 있는 개
미의 행동까지 기억하고 온갖 자연의 디테일을 경이롭게 바라본다. 평온하고 고요
한 모리의 정원에 다소 소란을 피우는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한다. 유명 화가인
모리에게 간판을 써달라며 먼 곳에서 찾아온 여관 주인부터 모리의 정원에 빠삭한
사진작가와 그의 제자, 정원 맞은편에 아파트 공사를 담당하는 직원과 인부들까지
여러 사람들이 부산스럽게 드나든다. 모리의 정원은 잠시도 조용할 틈이 없다. 하지
만 정원에서 고요하게 살아온 이 부부는 이 집을 찾아온 어느 누구에게도 역정이나
짜증을 내지 않는다. 아니, 거꾸로 식사를 준비하고 술까지 대접한다. 이들이 선택
한 삶만큼이나 부부의 순한 성향이 그대로 묻어난다(박, 2020).

표 6. '순한 성향'으로 상징된 꽃.

작품명	식물명/ 학명	작품 속 꽃(식물)의 활용	개화 특성 및 꽃말	사진
러브 앤 아나키	실내정원	막스의 실내정원 : 영동한 게임이나 즐기고 미 래가 보이지 않는 비정규직 직원인 막스, 그의 반전 매력은 식물 집사였던 것.	처음엔 난 세앗이야. 그러다 블루벨이 되고, 그다음엔 장 미가 돼. 나무가 되고. 그러 다 숲이 되면 굳건히 세계 돼.	
레옹	아글라오네마 <i>Aglaonema commutatum</i>	꽃말 : 여자친구가 죽은 뒤 레옹은 킬러로 살 아갈 뿐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으나, 마틸다와 함께 지내면서 행복해지고 싶다는 희망을 품게 됨.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 잠도 자고 뿌리도 내릴 거야. 절 대 네가 다시 혼자가 되는 일은 없을 거야. 사랑한다, 마틸다. 꽃말 은 행복.	
모리의 정원	실외정원	고요하고 평온한 정원에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 부산스러운데도 고요함을 유지하는 이 부부에 게서 순한 성향이 느껴짐.	초록빛 우주가 담긴 화가의 정원, 모리는 가만히 돌에 앉아 10시간째 정원을 감상 함.	

사진 출처 : 드라마 <러브 앤 아나키>, 넷플릭스 캡처/ 영화 <레옹>, 네이버 영화/ 영화 <모리의 정원>, 넷플릭스 캡처

3.5. 생명

<모리의 정원>, <서천꽃밭 한락궁이>, <하미연꽃>, <풍니> 등에서 꽃은 생명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각 작품별 꽃의 상징은 다음과 같다.

신화 <서천꽃밭 한락궁이>는 한국 신화에 등장하는 꽃밭이다. 서천꽃밭은 아무나 갈 수 없는 아주 먼 곳에 있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신비한 꽃들이 피어 있는 신비한 꽃밭인 것이다. 서천꽃밭의 꽃대왕 사라도령, 그 아들 한락궁이와 부인 원강아미가 나온다. 한락궁이가 아버지 사라도령을 찾아 서천꽃밭으로 떠나자 천년장자가 원강아미를 죽이고 청대밭에 버리는데, 그곳에서 한라구절초가 피어난다. 한편 서천꽃밭에서 한락궁이를 만난 사라도령은 어미를 살릴 수 있다며 한락궁이에게 뽕오를꽃, 살오를꽃, 피오를꽃, 숨트일꽃을 쥐어 준다. 이러한 생명꽃을 “실제적인 식물체계에서 유추한 것이 바로 동백꽃이다.”(장 등, 2013)라고 한다. 동백꽃은 전국에 다 있을 뿐 아니라 제주도에는 풍성하게 존재한다. <서천꽃밭 한락궁이>는 인간의 탄생과 죽음이 꽃과 연결된 신화이다.

영화 <모리의 정원>은 모든 것들이 더하고 덜함 없이 존중받는 세상이다. 부부가 연못가에 앉아 햇빛이 반짝이는 연못을 한참을 바라보고 있다가 모리는 아내에게 연못을 흙으로 메우겠다고 말한다. 사실 그 연못은 모리가 힘겹게 땅을 파서 만든 것이다. 모리의 집 앞에 고층아파트가 건설 중이고, 그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면 정원에 햇빛이 들어올 공간은 여기뿐이라며 아내가 건네준 꽃을 여기에 심어야겠다는 것이다. 고층건물 아래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식물은 없다. 그래서 모리는 연못 대신 식물을 선택한 것이다. 이 꽃은 모리의 정원에서 살아남은 생명체임을 상징한다. 그 생명체는 또 다른 생명체를 키워내며 모리의 정원을 가꾸어낼 것이다. 소박하고 단조로운 삶이지만 모리에게 정원은 항상 새로운 곳이었다. 움튼 싹을 보며 ‘여태 자라고 있었는가’라고 읊조리는 대사는 노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생명에 경외감을 느끼는 화가의 모습을 보여준다(박, 2020; 한, 2021).

소설 <하미연꽃>과 <풍니>는 둘 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한국군의 잔인한 학살을 다루고 있다. 호아[할아버지가 꽃을 좋아해 손녀의 이름을 ‘꽃’이라고 지음. 베트

남어로 호아는 꽃이라는 뜻]의 아기를 보고 자신의 아기가 생각난다던 서 하사, ‘탄’에게 초콜릿을 주고 8살 난 자기 아이의 사진을 보여준 한국 군인, 탄이 정성들여 키운 닭이 처음으로 난 달걀을 한국 군인에게 준 엄마 등 베트남 마을 사람들과 한국 군인들은 정을 주고받았다. 그러다가 한국군은 대부분 노인과 여자, 아이들이 주민인 마을 사람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베트남이라며 총을 쏘고, 집집마다 뒤져서 임신부며 아기며 가릴 것 없이 사살해 버린다. <하미연꽃>과 <퐁니>에는 공통적으로 노란 매화꽃이 나온다. 호아의 할아버지는 “노란 매화가 피어 있는 동안은 나쁜 운이 들어오지 못한다.”(김, 2021d)며 오직 노란 매화 앞에서만 예를 갖추었다. “엄마는 그 나무에 노란 꽃이 피지 않으면 집안에 나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면 정성을 들였다.”(김, 2021b). 황매화의 꽃말이 높은 기풍 또는 숭고인데, 소설에서 황매화를 언급한 것이 예부터 베트남에 전해 내려오는 풍속이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의 무참한 죽음을 숭고에 빚댄 듯하다.

표 7. '생명'으로 상징된 꽃.


작품명	식물명/ 학명	작품 속 꽃(식물)의 활용	개화 특성 및 꽃말	사진
서천꽃밭 한락궁이	동백나무 <i>Camellia japonica</i>	생명꽃 : 서천꽃밭에는 빼와 삼이 오르고 피가 돌고 숨이 트이는 꽃이 있는데, 바로 생명꽃임. 이러한 생명꽃을 동백꽃으로 유추함.	개화 특성 : 11월 말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해서 2~3월에 만발하는 편임. 꽃말 은 기다림, 애타는 사랑.	
모리의 정원	실외정원	연못 대신 꽃을 선택 : 높은 건물 때문에 그들이 지게 된 정원에서 햇빛을 가장 잘 받는 연못 자리에 꽃을 심기로 함.	모리를 찾아다니다가 연못가에 앉아 있는 걸 발견하고 꽃을 던지는 장면. 이 꽃은 모리의 정원에서 살아남은 생명체임을 상징함.	
하미연꽃, 풍니	황매화 <i>Keria japonica</i>	풍속 : 노란 매화꽃이 피면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믿음. 꽃말 : 베트남 주민들의 무참한 죽음을 승고라는 꽃말에 비유함.	개화 특성 : 꽃은 4~5월에 흰색으로 잎과 같이 피고, 가지 끝에 달림. 꽃말 은 높은 기품, 승고.	

사진 출처 : 동백, 위키피디아/ 영화 <모리의 정원>, 넷플릭스 캡처/ 황매화, PictureThis

IV. 결론

소설과 영화, 드라마 등 문화 매개체에 담긴 꽃의 상징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작품에 나온 꽃과 식물, 정원의 상징성을 의지, 사랑, 상실, 순한 성향, 생명 등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매체마다 꽃의 상징성을 다루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소설은 꽃의 생김새나 이미지, 꽃말, 꽃과 관련된 풍습 등을 활용해 꽃의 상징성을 은밀하게 보여줌으로써 상상하고 유추하게 하는 힘이 있다. 인물을 꽃 이미지에 비유하거나 의지를 꽃 모양에 빗대기도 하고, 상상의 꽃인 ‘생명꽃’을 등장시켜 인간의 탄생과 죽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베트남이 공간적 배경인 <하미연꽃>과 <풍니>, 그리고 인도가 공간적 배경인 <프리페이드 라이프> 등 김이정의 중단편 소설에는 꽃과 관련된 그 나라의 풍습이 나오는 것도 의미가 있다. 꽃이 상징하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 그러면서 가린 듯 안 가린 듯 은밀하게 구도를 잡는 작가는 분명 보물찾기에서 보물을 숨기는 사람이다.

드라마와 영화는 영상에 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상상의 영역보다는 스토리와의 연관성에 집중하는 효과가 있다. “드라마에서 식물의 역할은 대개 정해져 있다. 아름다운 영상미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등장하는 식물에 내포된 의미를 유추해 결말을 예상토록 하며, 보다 개연성 있고 풍부한 줄거리를 만든다. 식물을 선물한 상대를 떠올리게 하거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가 된다.”(이, 2020a). 꽃이 지닌 상징성이 스토리를 끌어가는 주체가 되는 드라마[작은 아씨들]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메밀밭과 메밀꽃이 자주 등장하는 드라마[도깨비], 중요한 시점마다 장미꽃이 등장하는 드라마[화양연화],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는 싹이 트지 않는다는 법칙을 깨고 사랑의 마음이 기적까지 일으키는 드라마[더킹: 영원의 군주], 엉뚱한 게임을 즐기며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청년이 식물 집사 면모를 보여주는 드라마[러브 앤 아나키], 청부살인업자 레옹이 살뜰하게 아글라오네마를 키우는 영화[레옹], 달리아가 사건 전개에 반전을 일으키는 소재로 활용된 영화[러브 해프스], 죽은 아내를 곱게 단장하고 머리 주변에 꽃을 흩뿌려 놓은 영화[아무르],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그린 영화[모리의 정원] 등 드라마와 영화에서는 꽃과 식물, 정원의 상징성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각 작품에서 다루어진 꽃의 상징성을 앞으로

씨 작품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꽃에 대한 관심, 나아가 식물의 세계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 다룬 작품은 사실 꽃의 상징성을 분석하는 대상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소설과 영화, 드라마에서 꽃의 상징성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은 수도 없이 많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설가 박완서의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아주 오래된 농담>에는 분꽃, 싱아, 능소화가 등장한다.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서 주인공 ‘동백’은 늘푸른나무처럼 미혼모라는 사회의 차가운 시선에 맞서 꾀꾀이 살아간다. <어쩌다 발견한 하루>의 능소화, <호텔 델루다>의 달맞이꽃 등 꽃의 상징성을 발견할 수 있는 작품은 많다(이, 2020a). 시대별로 꽃의 상징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또는 문학, 영화, 드라마 등 갈래별로 꽃의 상징성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문학 속 꽃의 특징을 다룬 책은 있으나, 야생화와 문학의 접점을 찾아내는 일에 주목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한편 이 논문에서는 작품에서 꽃의 상징성을 다루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소설과 영화, 드라마에 나온 꽃의 상징성을 원예치유 분야로의 확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원예치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널리 알려져 있다. 마르코 멘칼리와 마르코 니에리의 <치유하는 나무 위로 하는 숲>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글귀를 옮기며 원예치유의 필요성을 갈음하고자 한다. “식물이 있으면 질화와 스트레스가 줄고, 근무 장소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며, 편안함·만족감·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녹색공간이 내다보이는 창문이 있으면 이런 효과는 더욱 커진다. 닫힌 공간에서 식물이 주는 혜택이 정화기능보다 훨씬 크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것은 자연과 접촉해야 할 ‘신경 차원의(neurological)’ 선천적인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결과다.”(Mencagli and Nieri, 2020).

원예치유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효과는 크게 신체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행동적, 교육적 측면으로,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된다. 모든 유형의 대상자에서 정서안정, 우울, 자아존중감 등과 같은 심리·정서적 영역의 효과를 구명한 연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박 등, 2016). 이에 꽃의 상징성을 활용한 원예치유 프로그램 역시 심리·정서적 영역에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꽃의 상징성이 담긴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의 스토리텔링을 원예치유 프로그램에 입힌다면 흥미와 재미, 그리고 치유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반려식물과 식물 집사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었고, 원예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지금, 꽃의 상징성이 담긴 작품을 원예치유 프로그램에 활용한다면 다양한 꽃의 향기가 몸과 마음에 새겨질 것이다. 영화 <레옹>과 소설 <프리페이드 라이프>를 도구로 삼아 원예치유 프로그램 수업안을 제시한다(표 8, 9).

V. 인용문헌

- 공선옥. 2007. 명량한 밤길 ‘영희는 언제 우는가’. 창비, 서울, 한국, pp. 42, 49.
- 김민철. 2019. 서울 화양연화. 목수책방, 서울, 한국, pp. 166, 219.
- 김민철. 2022. 시인 백석이 사랑한 꽃, 수선화, 김민철의 꽃 이야기,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2/03/01/YW6LJ5E67JDKBKZPYELF3EJ3UY
- 김민철. 2023. 누군가에겐 가족 같은 실내식물. 한국교육신문.,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8296>
- 김선영. 2011. 동백꽃을 모티브로 한 패션문화상품 디자인 콘텐츠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5(3):304-311.
- 김애란. 2011. 두근두근 내 인생. 창비, 서울, 한국, pp. 227, 237.
- 김연수. 2020a. 일곱 해의 마지막. 문학동네, 서울, 한국, pp. 83, 181-182.
- 김은숙. 2020b. 도깨비., <https://tvn.cjenm.com/ko/dokebi/>
- 김이정. 2021a. 네 눈물을 믿지 마, ‘붉은 길’, 강. 서울, 한국, pp. 241-242.
- 김이정. 2021c. 네 눈물을 믿지 마, ‘풍니’, 강. 서울, 한국, p. 144.
- 김이정. 2021c. 네 눈물을 믿지 마, ‘프리페이드 라이프’, 강. 서울, 한국, pp. 22, 37.
- 김이정. 2021d. 네 눈물을 믿지 마, ‘하미연꽃’, 강. 서울, 한국, p. 42.
- 김지혜. 2012. ‘아무르’ 당신의 사랑은 어떤 모습입니까, SBS 연예뉴스,
https://ent.sbs.co.kr/news/article.do?article_id=E10001832044
- 네이버. 2023. 11. 23. 검색. 네이버 영화 리뷰 : 레옹(뤽 베송 감독, 1994년 개봉).,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ab_etc&mra=bkEw&pkid=68&os=1755156&qvt=0&query=%EC%98%81%ED%99%94%20%EB%A0%88%EC%98%B9%20%EB%A6%AC%EB%B7%B0
- 문학과지성사. 2012. 준비기꽃 언덕에서., <https://moonji.com/book/6861/>
- 박신애, 이아영, 손기철, 이금주, 김대식, 김완순. 2016. 국내외 원예치유 프로그램의 효과와 연구 동향. 인간식물환경학회 2016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 197-198.
- 박원순. 2019. 식물의 위로. 행성B, 서울, 한국, p. 170.
- 박정원. 2020. <모리의 정원> 30년째 정원 밖으로 나가지 않은 모리에겐 그의 정원이 곧 세계고 우주다. 씨네21 리뷰.,

-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95038
- 심윤경. 2013. 나의 아름다운 정원. 한겨레출판사, 서울, 한국, p. 244.
- 씨네21. 2023. 11. 23. 검색. 영화정보 : 아무르(미카엘 하네케 감독, 2012년 개봉),
http://www.cine21.com/movie/info/?movie_id=36826
- 영래. 2020. 러브 앤 아나키 씨앗에서 숲으로, 브런치 스토리.,
<https://brunch.co.kr/@younglae94/77>
- 우면산. 2022. 백석이 사랑한 꽃 수선화(일곱 해의 마지막을 읽고). 우면산의 야생화
저널., <https://sleepingcow.tistory.com/374>
- 윤정은. 2023.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 북로망스, 서울, 한국, pp. 133, 200.
- 이굴기. 2016. 내게 꼭 맞는 꽃. 궁리, 서울, 한국, pp. 19, 217.
- 이소영. 2020a. 이소영의 도시식물 탐색, 드라마에 그 꽃이 등장한 이유.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730029005&wlog_tag3=naver
- 이일하. 2022b. 이일하 교수의 식물학 산책. 궁리, 서울, 한국, p. 103.
- 이준목. 2020b. 애틋하고 절절하게 그려낸 ‘화양연화’, 왜 공허한가. 오마이스타.,
https://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638289
- 장석주. 2017. 은유의 힘. 다산북스, 서울, 한국, 추천사(이병률), 뒤표지.
- 장애란, 현명관, 김현미. 2013. 제주신화 서천꽃밭의 생불꽃을 응용한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 한국생활과학회지 22(4):667-676.
- 정정화. 2022b. 꽃눈, ‘담장 너머 접시꽃’. 실천문학, 서울, 한국, pp. 36, 57.
- 포포필름. 2020. <러브 앤 아나키>, 아찔한 장난 일상의 숨구멍. 브런치 스토리.,
<https://brunch.co.kr/@yoyoyo664/8>
- 플라워키퍼. 2022. 작은아씨들의 ‘도둑공주 난초’와 ‘유령 난초’ 실제 난초 & 설정적
의미 해석, 인테리어 꽃냉장고 플라워키퍼.,
<https://blog.naver.com/shinsaboy33/222874005559>
- 한상형. 2021. 영화 ‘모리의 정원’ “초록빛 우주가 담긴 화가의 정원! 야마자키
츠토무, 키키 키린 주연”. 한국강사신문.,
<https://www.lectur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6374>
- 한승원. 2018. 꽃을 꺾어 집으로 돌아오다. 불광출판사, 서울, 한국, p. 105.
- Buckmann, S. 2016. The reason for flowers. 박인용 옮김. 꽃을 읽다. 반니, 서울, 한
국, p. 295.

Fontana, D. 2002. The secret language of symbols. 최승자 옮김. 1999. 상징의 비밀.
문학동네, 서울, 한국.

Mencagli, M., Neri, M. 2017. The secret therapy of trees(Penguin Random House LLC,
2019). 박준식 옮김. 2020. 치유하는 나무 위로하는 숲. 목수책방, 서울, 한국. p.
222.

부록

표 8. 원예치유 프로그램: 영화 <레옹>.

영화 <레옹>과 아글라오네마		
대상	20세 이상의 성인	비고
수업 목표	영화 <레옹> 속 레옹과 마틸다의 현실적 조건을 파악하고 의지하는 대상 찾기를 통해 나의 현실적 조건과 의지하는 대상을 찾아본다.	영화 장면 띄우기 *레옹의 아글라오네마 화분 *식물을 돌보는 레옹 *식물을 심는 마틸다
도입 (5분)	식물 집사 되기 기초 퀴즈 1. 다음은 어떤 증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눈에 반한 식물은 어떻게든 길러봐야 직성이 풀리고, 과일을 먹는 날에는 그 안의 조그만 씨앗을 적신 솜 위에 얹어 싹을 틔워줘야 하고, 상추, 민트, 루꼴라, 고수, 바질처럼 쉽게 키울 수 있는 작물은 자급자족해야만 기분이 좋아진다. 2. 원예에 재능이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은?	
전개1 (15분)	- 레옹은 왜 청부살업자가 되었을까? - 레옹은 여자친구가 죽은 뒤 더 이상 사랑을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 가족을 잃은 12살 소녀 마틸다는 복수를 하겠다고 마음먹는다. 나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다짐을 할까? - 마틸다는 마약 비리 형사에게 부모님과 동생이 살해당하자 레옹에게 자신이 복수하게 해달라고 한다. 이를 반대하던 레옹에게 마틸다는 어떤 조건을 걸어 승낙을 얻었을까? - 아글라오네마 화분은 레옹의 분신과 같았다. 이 식물은 영화에서 어떤 상징성을 보여주는 걸까? - 레옹이 죽자 마틸다는 화분에 심겨 있던 아글라오네마를 땅에 심어준다. 왜 그랬을까? - 인상 깊은 대사 및 장면 말하기	
전개2 (25분)	- 레옹의 시그니처는 “한 손엔 우유 2팩, 다른 한 손엔 화분 하나” 그 화분 속 식물은 바로 아글라오네마! - 나의 시그니처 물건과 식물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특히 나의 시그니처 식물의 이름과 어떤 계기로 나의 시그니처 식물이 되었는지 대화 나누기	5인 이상일 경우, 모둠활동으로 진행
마무리 (15분)	- 내가 키우고 싶은 아글라오네마 종류를 선택하고, 생리적 특성 및 꽃말, 키우는 방법 등을 검색하여 포스트잇에 정리한 뒤 내 화분에 달아주기	아글라오네마 화분 준비

표 9. 원예치유 프로그램: 소설 <프리페이드 라이프>.

소설 <프리페이드 라이프>와 마리골드		
대상	20세 이상의 성인	비고
수업 목표	번아웃 혹은 데드마스크에서 탈출하기	인도 가트, 꽃볼 장면 띄우기
도입 (5분)	-나의 데드마스크 그리기 -코코넛 초와 야자 잎, 마리골드로 꽃볼 밑그림 그리기	
전개1 (15분)	- 버스 안 룸미러 속 나의 '데드마스크'를 발견했을 때 기분은 어떨까?	
	- 주인공 '나'가 데드마스크라고 생각한 이유는 뭘까?	
	- 인도의 택시요금제인 '프리페이드'와 주인공 내가 '프리페이드 라이프'라 지칭한 것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 인도 바라나시의 가트에서 강가로 밀려온 노란 꽃 목걸이를 발견하는데, 그 꽃의 이름은? 그 꽃의 꽃말을 유추해 보자.	
전개2 (25분)	- 주인공 '나'는 어두워진 강에 꽃볼을 띄우며 "자신을 잃은 삶이야말로 가장 부도덕한지도 몰라. 어떻게든 나를 회복하기 위해 살 거야."라며 삶의 의지를 다진다. 내가 현재 인도 바라나시 가트 강가에서 보트를 타고 꽃볼을 띄우고 있다면 어떤 소원을 빌까?	
	- 나의 데드마스크 바꾸기 - 꽃볼 만들기 & 소원 문구 적기	꽃볼 '디아' 재료 야자 잎으로 만든 접시, 작은 코코넛 초, 마리골드
마무리 (15분)	- 마리골드의 생리적 특성 및 꽃말, 키우는 방법 등을 검색하여 포스트잇에 정리한 뒤 내 화분에 달아주기	-도화지, 파스텔 -마리골드 화분 준비

Symbolism of Flowers in Fiction, Film, and Drama and their Use in Horticultural Healing

Kyung-Im Jung

DEPARTMENT OF HORTICULTURAL SCIENCE
GRADUATE SCHOOL OF INDUSTRY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how the symbolism of flowers is used in cultural media such as novels, movies, and dramas. The works to be analyzed were selected mainly from the 2000s, and a total of 21 works, including 12 novels, 4 movies, and 5 dramas, were targeted. Among them, novels were limited to Korean works to deal with plants living in Korea, and the dramas and movies included both domestic and foreign works and were analyzed by expanding not only flowers but also gardens. The symbolism of flowers found in the works to be analyzed was grouped into five themes: willingness, love, heartbreak, mild disposition, and life. It also reveal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lowers in each work revealed the character's character, showed the human inner side, and provided decisive clues to the event. It also revealed complex themes through the symbol of flowers.

In novels, it has the power to imagine and infer flowers by secretly showing the symbolism of flowers using the appearance, image, flower language, and customs related to flowers. On the other hand, in dramas and movies, flowers are directly shown in videos, so it has the effect of focusing on the connection with the story rather than the realm of imagination, and the symbolism of flowers, plants, and gardens is clearly revealed. Knowing the symbolism of flowers

covered in each work will allow you to deeply understand the work, and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pay attention to flowers and further enter the world of plants.

Lastly, horticultural therapy classes can be abundantly expanded by storytelling how each work, such as flowers'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images, and flower words, handles the symbols of flowers. This is because horticultural therapy programs using flower symbolism have effects in psychological and emotional areas. Therefore, we propose a horticultural therapy program using the film <Leon> and the novel <Prepade Life> as tools. It is expected that such instructional plans can be abundantly utilized in horticultural therapy programs.